

포털 라이벌 네이버·카카오, 'AI 경쟁'으로 2라운드

국내 대표 IT 기업들인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AI 부문에 검색 부문을 통합해 음성 검색 등 신사업을 추진할 '서치엔클로바'란 조직을 만들었다. 카카오는 그 동안 품절됐던 AI 스피커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내에 AI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편집자주>

'검색 + 인공지능' 역량 한 곳에서

네이버 '서치엔클로바'

네이버서치·클로바, 통합조직으로 출범
각각의 핵심 성장동력 묶어 시너지 기대

네이버가 검색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인 '네이버서치'와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바'의 개발·운영을 맡는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고 5일 밝혔다.

새 통합 조직 명칭을 '서치엔클로바'다. 네이버 간판 수익원인 검색과 핵심 성장 동력인 AI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치엔클로바는 네이버 핵심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라인 최고글로벌 책임자)가 수장을 맡는다. 그간 신 대표가 클로바 사업을 총괄한 만큼 AI 조직이 검색 조직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플랫폼과 함께 검색·추천형 서비스에도 새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통합으로 고도화된 A



I 기반 검색 기술을 확보하고 클로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다양한 새 서비스도 준비할 것"이라며 "일본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답을 찾아주는 AI 기반 음성 검색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택시 불러줘"... 카카오톡 미니 재판매

카카오 '카카오미니'

멜론 정기결제 이용하면 최대 58% 할인
평창올림픽·택시 호출기능 등 업데이트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미니는 음성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품 가격은 11만9000원이지만 멜론 정기 결제 이용자는 4만9000원(희망소비자가격에서 58% 할인)에 카카오톡 미니를 구매할 수 있다. 멜론 신규 가입자나 정기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멜론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니(4만9000원, 희망소비자가격에서 58% 할인)와 '멜론 스트리밍 클럽' 6개월 할인쿠폰(4만원, 정가 대비 22% 할인)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 모두는 카카오톡 미니 전용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1종(라이언, 어피치 중 선택)을 받는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 카카오는 지

난 1월 30일 카카오톡 미니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배달음식 주문 ▲교통·길 찾기 정보 ▲여행 사전 ▲스포츠 정보(축구) ▲영화/TV 정보 ▲지식·생활 정보 ▲실시간 검색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6일에는 평창올림픽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여자 하키 경기 언제야?", "오늘 쇼트트랙 경기 결과 알려줘" 등 관련 명령어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올림픽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택시 호출 기능도 7일 업데이트된다. 카카오톡 미니 설정 앱 '헤이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택시 사용 여부를 설정하고 출발지 주소를 등록한 뒤 "강남역으로 가는 택시 불러줘" 등의 명령어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오는 데 얼마나 걸려?" 명령어로 택시 도착 소요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미얀마 PHC파일 공장 준공... "시장 확대" LG전자, ISE서 '상업용 올레드' 대거 공개

아주산업 해외 세번째 생산기지
"연간 20만톤 규모 PHC파일 생산"



아주미얀마 생산공장 전경.

아주그룹 계열인 아주산업이 미얀마에 PHC파일 생산공장을 짓고 동남아시아를 추가 공략한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은 세번째 현지 진출이다.

아주산업은 지난 2일 오후 미얀마에서 공장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PHC파일 생산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PHC 파일이란 전봇대처럼 생긴 것으로 구조물의 대형화, 연약지반에서의 건설공사,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 등 지반의 기초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한다.

미얀마 필라와 경제특구에 자리한 아주미얀마 공장은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해 약 11개월 동안 건설에 들어가 한달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준공을 맞았다.

공장 부지면적은 5만9822㎡, 연간 2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태국·라오스 등 동남아 주변국가를 아우르는 PHC파일 공급의 전략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주산업은 아주미얀마 생산공장을 교

두보로 삼아 연간 20만톤 규모의 PHC파일 생산뿐만 아니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생산, 파일시공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다.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아주미얀마 공장은 2008년 아주베트남 PHC파일공장과 2011년 캄보디아 전신주 생산공장에 이은 아주산업의 3번째 해외진출사례"라며 "지난 50여년간 콘크리트 분야에서 쌓아온 차별화된 생산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재 전문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네덜란드서 열리는 'ISE 2018' 참가
'투명·오픈 프레임 사이니지' 등 전시

LG전자가 6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8'에서 차세대 사이니지 제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대표 제품은 첨단 올레드 기술력을 집약한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다.

회사측은 "올레드 사이니지는 백라이트가 없어 기존 LCD에 비해 두께가 얇을 뿐만 아니라 곡면 구현이 자유롭고, 어느 각도에서도 생생하고 정확한 색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이니지 제작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에서 관련 정보를 보면서 너머의 상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는 올레드만 가능한 옹골하고 볼록한 디자인으로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이다. CE



LG전자 부스에서 모델이 '차세대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S 2018에서 관람객들의 극찬을 받았던 '올레드 협곡'도 이 제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 밖에도 LG전자는 투명 강화유리에 앞뒤로 두 장의 올레드를 붙인 '인글라스 올레드 사이니지', 4mm 이하의 얇은 두께로 벽과의 일체감이 탁월한 '올레드 월페이퍼', 베젤이 3.5mm까지 얇아진 '올레드 비디오월' 등도 전시했다.

LG전자는 이번 ISE 2018에서 각종 매장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공항, 호텔, 회의실 등 다양한 산업 현장별로 특화된 사이니지 솔루션을 전시한다.

특히 LG전자의 공항 사이니지 솔루션은 빛 반사율을 줄여 시인성을 극대화한 반사 저감 비디오월을 적용,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비행안내판 등에 최적화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대우위니아

현 김치냉장고 반납하면 '30만원' 등 경품

대우위니아는 오는 22일까지 '설맞이 담채 보상판매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형 김치냉장고를 반납하고 담채 신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카드사와 연계해 제공한다.



행사 대상 담채 신제품 모델은 3룸, 4룸 스탠드형 제품과 담채 마방, 뚜껑형 제품 등이다. 반납 제품은 담채가 아닌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모델명 및 연식 제한은 없다.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설치 기사가 직접 방문해 새 제품을 설치하고 기존 제품을 회수한다.

/정은미 기자

누적탑승객 5000만명... 韓 인구 돌파 임박

제주항공 취항 11년 8개월 만

제주항공이 지난 2월3일 누적탑승객 50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누적탑승객 5000만명 돌파는 2006년 6월5일 취항 이후 11년 8개월 만이며, 4000만명 돌파 이후 채 1년이 안 걸렸다. 조만간 우리나라 총인구수(지난해 12월 기준 5177만 8544명) 만큼의 누적탑승객수도 달성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취항 이후 6년 11개월 후인 2012년 5월 1000만명을 달성했으며 이후 2년 2개월 만인 2014년 7월 2000만명, 1년 6개월 만인 2016년 1월 3000만명, 1년 1개월 만인 2017년 2월 4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1000만명 단위 돌파기간을 급속하게 줄이고 있다.

5000만명의 누적탑승객 가운데 국내선 탑승객은 3003만여명으로 60.1%의 비중

을 차지했으며, 국제선 탑승객은 1997만여명 39.9%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국제선에서는 일본이 16.9%(845만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태국·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노선이 11.1%,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마카오·대만 등 중화권이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연간 순증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8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총 39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